선천적 지체장애 앓는 20대 아들 질식사법원 “그동안 헌신·노력, 고통·고뇌 공감”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는 아들을 수십 년간 뒷바라지하다 본인도 백혈병 진단을 받으면서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20대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숨진 아들은 선천적으로 심한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었으며, 폐렴으로 인해 식도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 복부에 호스(위루관)를 꽂아 영양을 공급받아 지냈다.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데다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많게는 하루 10번 이상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주변인들이 아들을 장애인 시설 등에 맡길 것을 권유했으나, 혹여 괴롭힘을 당할까 봐 A 씨가 직접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그러다 A 씨는 2009년 11월에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2022년 12월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중증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봤지만 아들을 수용할 시설은 없음을 깨닫고 함께 생을 마감하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품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그 누구보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지난 26년간 어떠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대하고 보살펴 왔는지 아는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